

구정질문 서면질문서

질문의원 : 이충숙 의원

1. 우리 강서구는 한강공원을 접하고 있는데 이 한강공원을 가양대교 남단 중앙부터 김포시-서울시 경계 8.5Km 구간은 강서한강사업본부에서 관할하고 있고 나머지 가양대교 남단 중앙부터 국회 뒤 샛강 사면지까지 5.9Km 구간은 양화한강사업본부에서 관할하고 있음.

그런데 가양 구름다리부터 염창교를 지나 안양천 초입부분은 두 곳의 한강사업본부 관할 경계 지역으로 강서·양화한강사업본부 어느 곳에서도 관리하지 않는 사각지대임.

이 곳은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어 자전거 이용자와 통행량도 많으며 염창교 아래에는 휴게 쉼터도 조성되어 있음.

그러나 「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」을 비롯하여 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」 제17조 등에 따른 담배꽂초, 껌 등 오물 무단투기, 금연 등의 공원 내에서의 금지행위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으며 법 위반자 관리뿐만 아니라 공원 관리도 되고 있지 않음.

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이 지역 관할이 강서구청이라 하는데 강서구청은 이 장소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 그저 하천관리를 업무를 맡고 있는 물관리과에서 민원이 생기면 기동반이 출동해 청소를 하거나 가지치기·잡초 제거를 하거나 하는 실정임.

자원순환과도, 동 주민센터도, 공원녹지과도, 보건소도, 교통행정과도 업무와 관련 있는 민원이 발생하면 모두 관할이 아니라며 이곳에서의 일은 나몰라라 함.

관리 소홀로 인한 쾌적한 공원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임.

이에 우리 구는 관리가 누락된 가양~염창동 일부 구간의 한강공원 관리를 한강공원사업본부로 이관하여 한강공원 관리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?

(사진 별첨1, 2, 3)<물관리과>

2. 2021년 8월말 기준 강서구에 자동차 대수는 204,675대이며, 그 중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4,196대로 강서구 전체 화물 자동차 20,983대의 20%를 차지하고 있으나, 화물자동차의 강서구 내 공원 및 아파트 단지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소음 및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고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. (최근 2년간)

- 강서구 화물자동차(건설중기 포함)불법 주차 관련 민원접수건수 및 처리내역

<교통행정과, 건설관리과>

- 염창공원 내 불법 밤샘주차 민원관련 조치결과(행정처분 등) <공원녹지과>

<별첨1>



<별첨2>



<별첨3>

